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Newsletter



23대 회장 인사말

캐나다 한인 여성회 회장직을 한 해 더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여성회는 더욱 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발전은 자선단체 면허 갱신에 대한 노력과 직원 인원 수 증가입니다. 현재 여성회는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오늘 여성회는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한 중대한 시점에서 있으므로 이러한 발전에 안주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발전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할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류사회기관들의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채용입니다. 이런 추세가 우리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떠나서 진정 동포사회를 위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앞으로 23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여성회가 당면할 도전도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추세를 함께 숙지하시면서 여성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장 유 상 희

제 1회 캐나다 한인여성회 미술반 전시회

The 1st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Art Class Exhibition

“ 그리며 생각하며 ”

October 9 ~ October 12, 2007

- ◆ 오프닝 리셉션 : 2007년 10월 9일 저녁 6시
- ◆ 장소: Korean Consulate General(토론토 총영사관)
555 Avenue Road. Toronto
- ◆ 전화: 416-920-3809
- ◆ Gallery Hours: 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 례

1면	회장 인사
2면	직원단상
3면	여성회 소식/ 미술반
4면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 '손에 손잡고'
5면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6면	정착 이야기
7~9면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10면	기부금/자원봉사/회원 가입

직원 단상 I

저는 유방건강 증진 '손에 손잡고' 프로젝트의 환우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암'이라는 단어를 신문, TV광고등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방암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단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불과 일년전에 저 또한 '유방암'이라는 단어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데다 평소 건강에 대해 자신이 있던 제게 유방암이 생길거라고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는것이 힘이라는 옛말처럼, 제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이곳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생공부가 되었고, 이제는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생존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성회 유방암 프로젝트는 한인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유방암 조기 진단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방건강 증진 프로젝트 '손에 손잡고'

코디네이터 이 은 경

직원 단상 II

저는 유방건강 증진 '손에 손잡고' 예방 프로젝트를 맡은 코디네이터 류윤상 입니다. 모든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이민 생활의 분주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간과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인 여성들은 보수적인 한국 문화의 특성상 여성의 신체 기관인 유방에 대해 본인 스스로 만지는 자가 검진을 터부시하거나 의사와 상담하는것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방암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하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시기를 놓치게 합니다. 또한 언어의 어려움으로 의료진들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진료 방식이나 과정에 익숙치 않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투병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하나가되어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소외 계층이 아닌 손을 잡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던중 한인 여성회에서 시작하는 유방암 예방 프로젝트 '손에 손잡고' 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Outreach Project는 유방건강 관련 워크샵을 통하여 동료 지도자를 양성하여, 여성 스스로가 유방암 자가 검진 (Breast Self Exam: BSE), 유방암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 및 유방암 관련 의학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자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인 이민 여성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작은 힘이지만 꼭찬 마음으로 한인 지역사회가 더욱더 따뜻하고 밝게 커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 여성의 유방암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방건강 증진 프로젝트 '손에 손잡고'

코디네이터 류 윤 상

여성회 소식

- ◆ 커뮤니티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프로그램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성회는 9월 상담실, 컴퓨터실, 사무실의 낡은 집기류를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의 재정지원으로 교체하였다.



<교체전>



<교체후>

- ◆ 23대 캐나다 한인 여성회 회장단과 이사님들을 소개합니다.

직책	이름
회장	유상희
부회장 & 섭외 위원장	신복실
부회장 & 섭외 위원장	안주영
회계 & 재정 위원장	최성학
서기	문희배
총무 위원장	임희승
사업 위원장	박상희
회원 위원장	최경애
이사 (재정, 회원)	박숙훈
이사 (회원)	신순자
이사 (회원)	안귀란
이사 (재정)	국은화
이사 (총무)	윤보인
이사 (재정)	Stephen Lee
이사 (재정)	Lucy Park
이사 (재정)	Gail Lee

여성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원(1년/평생)이나 기부자로 여성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Hand in Hand)’ -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

암이라는 병이 자신에게 현실이 될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의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에 걸리는 여성들은 나의 가족, 나의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위의 평범한 여성들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매년 한국 여성들의 사망원인 1위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인여성회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CBCF: 캐나다 유방암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손에 손잡고’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한인 여성회의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는 한인 이민 여성들을 위하여 유방암 관련 워크샵을 통하여 동료 지도자를 양성하고, 여성 스스로가 유방암 자가 검진 (Breast Self Exam: BSE), 유방암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 및 유방암 관련 의학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자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한인 이민 여성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사회지원 네트워크를 형성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잘 알려진 Well-Spring의 지원그룹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유방암 환우 지원 그룹을 만들어, 환우와 환우를 돌보는 사람들의 심리 지원을 도우며, 문화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만남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아울러 재발을 방지하고, 긍정적이며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 여성회는 온타리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과, 혹은 혜택 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Immigrant Women's Health Centre 지원으로 유방암 촉진과 자궁 경부암 무료 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한 발 앞서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방암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후에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친구와 이웃들을 대상으로 배운것을 서로 나누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류 윤 상, 이 은 경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유방암 재단(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미술반 강경선

지금으로부터 4년전, 2000년도에 시작된 이민 생활에 조금씩 지쳐갈때 즈음해서 난 한인 여성회에 노크를 하였고 여러가지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중에서 미술교실이 신설된다는 이야기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것 만큼이나 내게 큰 기쁨으로 다가 왔었다.

나의 모국, 한국에서의 어린시절, 화가를 꿈꾸기도 했었지만 현실은 내게 화가로서의 꿈을 접게 했고 사춘기 시절엔 화가에 대한 미련 마저도 접게 하였다. 그렇게 그림에 대한 열정까지 애써 외면한채 난 가족과 함께 이곳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이민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림에 대한 생각마저 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에 지쳐갈때쯤 알게된 한인 여성회의 미술반 신설에 대한 소식은 내게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을수 있을것 같은 마치 한줄기 빛처럼 그렇게 내게 다가 왔었다. 그러면서 가슴속 깊숙이 숨쉬었던, 어쩌면 영원히 꺼져 버릴수도 있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림을 사랑하고 미술반 멤버들을 사랑하시는 화가이신 선생님 그리고 인생 선배, 후배인 멤버들과의 돈독한 우애속에서 캔버스의 그림들을 점점 빛을 발했고 각자의 삶의 철학, 인생의 지혜들은 그대로 그림이 되었다. 첫번째 전시회를 앞두고 설렘, 긴장, 흥분속에서 우왕좌왕 하던 우리의 모습들은 모두 한편의 그림처럼 지금까지 나의 기억속에 뚜렷이 각인 되어 있다. 작년 큰 수술로 인해 오랜시간 그림과 떨어져 있게 되었을때 그림에 대한 열정은 수술 후유증의 고통과 통증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고, 몸이 회복되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미술반 멤버들과 캔버스를 고르는 시간들 속에선 한때 잠시 좌절되었던 의욕과 자신감을 되찾기도 하였다.

요즘 난 미술반 멤버들과 함께 선생님의 지도아래 우리들의 4번째 전시회를 위한 작품을 그리고 있다.

한인 여성회의 지원으로 이번엔 꿈의 전시 공간이라 생각해왔던 영사관에서 우리의 노력의 결실인 그림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선보여 지게 될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삶은 때때로 나를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그림에 대한 나의 열정이 식지 않는 한 나의 꿈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그 꿈을 되찾게 해준 한인 여성회에 진실로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늘 함께 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줄인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II

미술반 오영옥

한인 여성회 미술반 운영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때 정말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꿈을 접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결혼 시키고 어느날 나를 돌아볼때 무엇인가 잃어 버리게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던차에 한인여성회에서 미술반을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투자할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된 뒤에도 기회를 주시는 구나 하고 감사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 한테도 자랑합니다. ‘할머니도 미술 학교에 가서 그림 그린단다’ 하면서 손주들과 함께 그림도 그린 답니다.

어느 어머니나 마찬 가지겠지만 본인을 위해서 선뜻 미술 학원에 등록을 할수 없을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신 한인 여성회 미술반 운영을 오래오래 지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삶을 이렇게

정착 이야기

2003년 7월 온가족은 한국의 서울에서 캐나다 이민을 위하여 토론토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Social Worker 로 15년이 넘게 일을 했던 나는 토론토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였다. 토론토 도착 후 다음 날 나는 가족의 정착계획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한인 이민자를 위한 정착서비스 기관을 찾게 되었고 정착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와 아울러 취업준비 관련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 때 Settlement Worker는 취업준비를 위한 4주 풀타임 프로그램을 추천하였다.

캐나다 랜딩2주 후 거주하고 있었던 이토비코에서 가까운 미시사가의 AUDMAX라는 Employment Centre 에서 캐나다에서의 취업을 위하여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등을 배우고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 후 Internship for Internationally qualified을 위한 Career bridge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였고 두 기관으로 부터 나의 전문분야와 관련한 Social Services기관 정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스스로 또한 능동적으로 찾으면서 3곳의 non profit organization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3개 기관은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KCWA도 포함이 되었다. 그런 과정 중 한국에서 일했던 나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사회복지 기관인 KCWA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트타임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캐나다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정착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캐나다의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직접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많은 자원봉사 경험은 나에게 정착에 큰 기초가 되었고, 자산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는 나 뿐만이 아닌 우리가족 모두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대학 재학 중 이었던 큰 아들과 대학 입학 앞 두고 있었던 작은 아들은 이 곳 토론토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이민 온 한인 친구들을 따라 매주 토요일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고, 봉사활동은 병원, 커뮤니티로 점차 확대되었고, 남편 또한 2006년 MP선거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거 자원봉사를 하면서 캐나다의 선거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온가족의 자원봉사는 낯선 캐나다에서의 생활에 활력과 아울러 다양한 봉사를 통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였고, 캐나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하였으며 Korean Canadian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캐나다 이민 3년 8개월이 된 우리가족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남편은 교육 컨설턴트로, 큰 아들은 OCAD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작은 아들은 U of T에서 Civil engineering을 공부하고 있으며, 나는 사회복지 기관 KCWA에서 settlement worker로 일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의 나라 캐나다에서의 새 삶에 조심스럽게 정착해감을 감사하고 있다.

정착 상담원 강 영 옥

여러분의 정착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원고를 여성회로 보내주시시오.

문의: 한인여성회 416-340-1234

주요행사

♣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2기 동료부모지도자 훈련

6월 6일-20일 까지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2기 동료부모 지도자 훈련에 11명이 참여하여 총 5회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훈련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성이란 무엇인가?’, ‘어린이들의 성 발달’,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부모역할’,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 ‘성에 관한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훈련과정을 마친 지도자들은 1기 동료부모 지도자들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다.

희망하는 그룹, 단체는 프로젝트코디네와 상의하여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워크숍을 할 수 있다.

♣ ESL Banking/ Police

새 이민자들의 캐나다 정착도움을 위한 ESL Banking 프로그램이 TD 은행의 지원으로 은행거래, 예금/저축 계좌, 신용카드, 주택모기지, RRSP 등 다양한 은행정보를 영어로 배웠으며 실생활에 유익한 은행관련 정보와 함께 이민자로서 은행이용의 어려운 점을 감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ESL Police 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경찰 서비스도 알게 되었으며, ESL Toronto Guide는 9월-11월 까지 진행되며 프로그램을 통하여 토론토의 특별 시장/식품점을 비롯하여 특정 지역 등이 수업과 아울러 현장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 시민권 시험 대비강좌

시민권 시험 준비를 위한 강좌가 7월 10일 부터 4주간 실시되었으며 ‘A Look At Canada’ 책자를 교재로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강좌 마지막 날에는 모의시험을 통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English Cafe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English Café 프로그램 그동안의 수업내용을 변경하여 10월 부터는 Metro 신문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한다. 매일 매일의 시사 뉴스를 Metro 신문을 통하여 접하면서 다양한 대화의 주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리며 생각하며’ 성인 미술 교실

‘그리며 생각하며’ 성인 미술교실은 10월 9일-12일 까지 제1회 Art Class Exhibition 을 토론토 총영사관 갤러리에서 갖는다. 성인 미술교실은 함께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서로 격려와 지지를 통하여 생활의 활력을 갖고 예술적 성취감과 아울러 편안한 이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막 리셉션은 10월 9일 오후 6시 총영사관 갤러리.

전시회 관련 자세한 사항 문의는 한인여성회(416-340-12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며 생각하며’ 성인 미술 교실 >

♣ 건강한 가정 지킴이 1기 동료 지도자 훈련

‘가정폭력 예방프로젝트’가 2006년 5월 시작되었다. 제 1기 지도자 훈련이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시간 동안 여성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18명의 동료 지도자가 배출되었다. 아울러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워크숍 매뉴얼도 7월 만들어졌다.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15시간 동안 동료지도자

주요행사

♣ 5월 셀프헬프 회원들 자원봉사 참여

지난 5월 12일 셀프헬프 회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여성회의 연계기관인 The Scott Mission에서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식사 배급 및 식당 정리를 하였다.

♣ 셀프헬프 피크닉

2007년 7월 7일 정기모임인 “셀프헬프그룹”에서는 가족 피크닉 행사가 있었다. .평상시 여성회 건물에서 진행되고있는 월례 모임에서 벗어나서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피크닉이 진행되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회원자녀들과 게임, 공놀이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따로 실시함으로써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온가족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질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행복한 가족관계 워크샵

가족간의 대화법을 익힘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행복한 가족관계 워크샵”이 8월 22일 과 29일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 다문화가정 모임

다문화가정 모임이 6월 8일, 9월 7일 시행되었다. 다문화가정모임은 격월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캐나다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타문화배경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친목도모 및 네트워크형성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회원들의 행복한 가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컴퓨터 교실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의 여러가지 정부 서비스들이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많은 한인 동포들이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메일 사용법과 워드 작성법 등의 기초 지식을 목표로 한인 동포들을 위한 컴퓨터 기초반을 진행 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급반을 개설, 취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워드 사용, 엑셀 사용등의 사무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 교실도 진행중이다.



<컴퓨터 교실>

♣ 취업 세미나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있는 원스톱 정착 오리엔테이션 “취업 및 비즈니스 정보”에는 꾸준히 취업 정보를 찾는 한인 동포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매 회 다양한 분야의 취업 준비생들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격월로 개최되는 “풀타임 취업을 위한 정보 세미나”를 통해서 캐나다 정부의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0월부터는 취업 준비를 서로 도울 수 있는 취업을 위한 “Speaking Club”을 시작할 예정이다. “Speaking Club”을 통해 취업의 관건인 영어 능력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동포들이 서로 모여 정보 교환도 하고 인맥도 쌓을 수 있

♣ 취업 및 채용 정보 공고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웹사이트는 점점 더 많아지는 접속자수 덕분에 한차례 불통이 되는 경우마저 발생할 정도로 최근 많은 한인분들이 찾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인 여성회에서는 웹사이트의 접속량을 기존의 10배로 증가시켰으며 증가하는 접속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더욱 다양한 취업 및 채용 정보를 게시판 통해 알리고 있다. 취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한인여성회 웹사이트 게시판이나 취업 담당원의 이메일 employment@kcwa.net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다.

♣ 취업 상담

취업 정보, 자격증 정보, 트레이닝 정보, 이력서 작성, 영어 수업 정보 등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직접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및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력서 작성 같은 취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한인 동포들이 한인 여성회와 같은 취업 도움 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 기술 이민자들의 취업 실태 설문 조사

한인여성회에서는 기술 이민자들의 취업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인 기술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 이민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설문 조사의 결과 보고는 한인여성회 웹사이트를 통해 조만간 발표 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인 동포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한인 여성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를 통해 한인 동포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원스톱 정착 오리엔테이션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보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캐나다 정착에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원스톱 정착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받을수 있도록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원스톱 정착 오리엔테이션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달에 총 4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1주: 캐나다 사회복지 정보

- 연방정부/주정부/시정부 별 서비스 정보와 교육 및 의료 정보 (CCTB, 고용보험, 시민권, 의료보험, 탁아보조비, 정부 아파트 등등)

2주: 캐나다 문화와 음식 & 요리 강좌

- 캐나다 음식 문화 정보
- 다민족 음식 요리 강좌

3주 : 취업 & 비즈니스 정보

- 캐나다 취업을 위한 정보/취업 준비 기관 활용 정보 (이력서 작성, 네트워킹, 취업트레이닝 정보, 학교 정보 등등)
- 캐나다 취업 경험담/비즈니스 경험담

4주: 자원봉사 활동 & 가정의 안정 도모

- 캐나다 생활 적응과 취업을 위한 자원봉사
-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이해

♣ 자원봉사 활동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정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The Scott Mission 과 Good shepherd Centre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으며, 월 4회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캐나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이해와 성공적인 정착에 도모 하고 있다. 9학년 이상의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참여 할수 있어서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부금 및 자원봉사 현황(존칭은 생략)

(2007 년6월~2007년 9월)

♣ 일반 기부자

Ngyuen, 하영리, 최기선, 정영득, 정영평, 김경남, 조영숙, 강기원, 손재선, 이화자, 그외 무명

♣ 물품 기부자

하영리, Noah Trading, 김지인, 최경애, 박숙훈, 유상희, 정세인, 강영옥, 신복실, 신영주, 장미선, 박원희, 그외 무명

♣ 고통분담 기부자

이정준, 최경애, 뽀엘선교회, Neilson Dairy, 그외 무명

♣ 자원봉사자

홍성철, 이해선, Allana Cho, Hamilton Choi, 박정민, 박지영, 이은경, 박원희, 안은하, 장미선, 한지혜, 박영숙, 강영옥, 하영리, Karla, 그외 무명

회원가입

♣ 1년 회원

김은희, 조수매, 박경연, 김광순, 이경심, 이지영, 이미숙, 이봉재, 조신자, 조성자, 김영화, 서봉순, 윤명자, 장광의, 임길순, 김민경, 이계일, 박루시, 윤보인, 신순자, 이스티븐, 정주희, 김명숙, 박진철, 이정애, 송준모, 박원희, 이의숙, 이흥근, 김창옥, 그외 무명

FUNDED BY:



Ontario

THE ONTARIO TRILLIUM FOUNDATION



LA FONDATION TRILLIUM DE L'ONTARIO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FONDATION CANADIENNE DU CANCER DU SEIN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